

▶면에서 이어짐

그 외에도 다른 중핵과목들과 다르게 1,2 학기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정해진 교재가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른바 '21세기형 인재에 맞춰 학교가 제시한 융합교육'의 일환이자 '풍부한 교양'을 위해 애심차게 첫 발을 내딛었던 빅문. 하지만 이 빅문은 2년차인 현재,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애심차게 도입한 빅문,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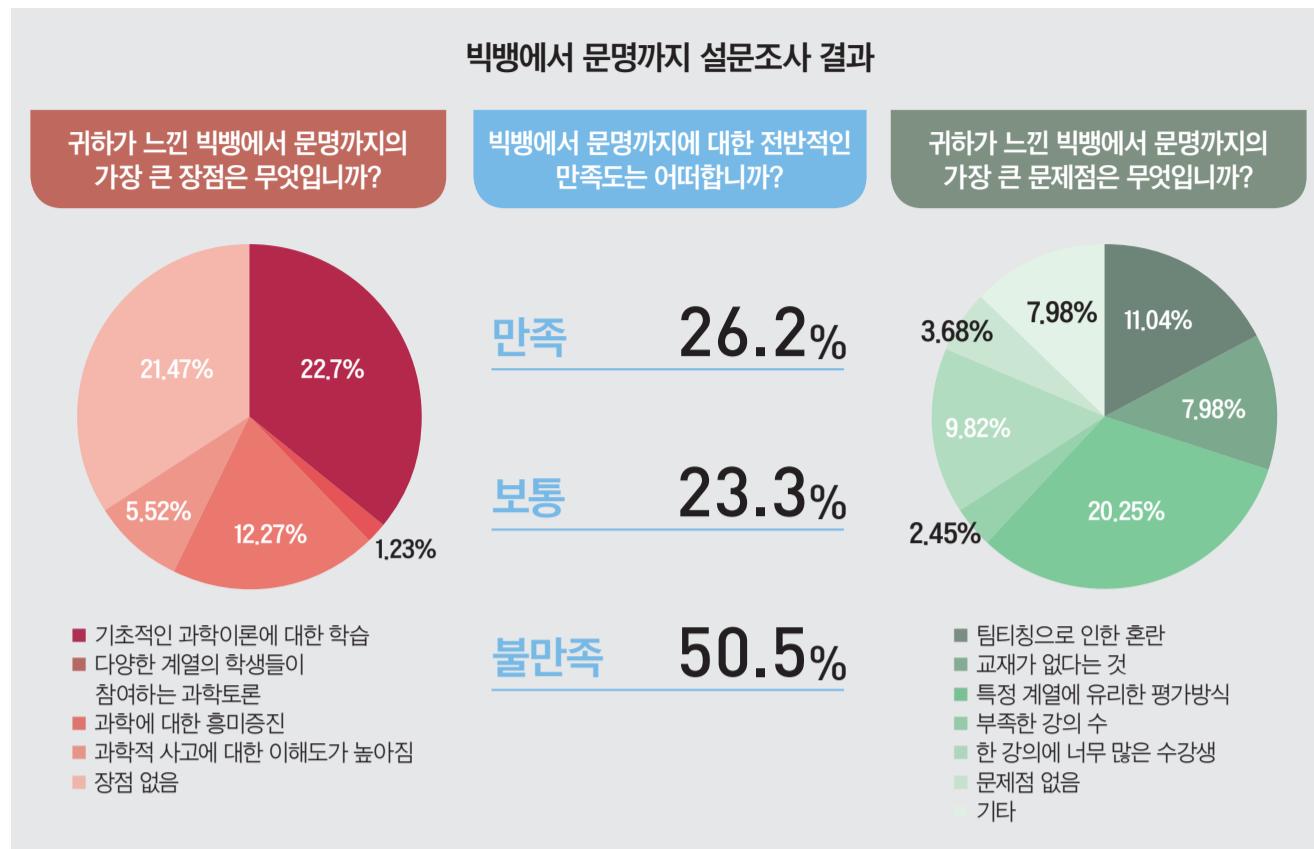
막상 이 교육의 수혜자가 돼야 할 학생들이 그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에서는 빅문에 대해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16학번과 17학번 재학생 총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빅문을 '수강 중' 혹은 '수강완료'했다고 답한 103명의 학생 중 불과 약 26%(27명)의 학생들만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을 따름이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들 약 2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교수법, 평가방식, 강좌 수, 강좌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있다.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교수법은 빅문이 채택한 특유의 '팀 티칭'이다. 빅문 커리큘럼 편성에 참여한 이과대학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는 팀 티칭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각 교수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팀 티칭 방식을 통해 해당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있는 교수들이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은 팀 티칭 방식의 장점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입장이다.

팀 티칭, 그 문제와 한계

빅문을 2016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이경서(언론정보학 2016) 군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거의 매번 바뀌는 교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다"며 팀 티칭 방식을 꼬집었다. 또 임세미(물리학 2016) 양도 "팀 티칭 방식이 딱히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매번 바뀌는 수업스타일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동일한 수업을 듣고도 '고등학교 과학 수준이었다'라는 응답자가 있는 반면 '수업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



지난 달 23일 크라운관에서 제3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1차 특강 '우주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우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양윤주 기자)

는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한 강의에 뒤파여 있어 균질하지 않은 학습자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평가도 많은 목소리를 낳는다. 한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과 교수에 대해 평가하는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강좌에 대해 피드백 혹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다. 현데 빅문의 경우, 강의자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교수에 대한 평가는 애매하다. 앞서 말한 5~7명의 교수 가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교수가 특정 반에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2~3번 밖에 학생들과 만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학주보 설문조사 응답자 C씨는 "강의평가 때 교수님에 대한 항목에서 혼란스러웠다"고 답했고 이경서 군은 "2~3번 밖

에 만나지 않은 담당 교수를 생각하며 평가했다"고 말했다.

평가방식의 문제

빅문의 평가방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말했듯 빅문은 '팀 티칭'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반마다 팀 티칭을 하는 교수들의 구성은 차이가 있

음에도 중간, 기말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시험지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우리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 A씨는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듣는 학우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주로 배우는데 내가 수강하는 교수님은 인생, 직업관과 같은 접근을 해서 과학기반 철학수업 같았다"며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데 시험은 같이 본다는 것은 불합리"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응답자 B씨는 교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체계가 명확히 잡혀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업 진행 및 시험을 치르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의 문제

교육환경 문제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빅문의 강좌 수 부족문제, 강좌별 수강인원 과포화의 문제, U-class 출결시스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우리신문 제1610호 사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강좌 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크다. 그 해 신입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이 매 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을 기준으로 수강신청 이후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및 비밀게시판에는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의를 구한다는 게시물이 총 135개 올라왔다. 현희진(언론정보학 2016)양은 "이번 학기에 듣고 싶었지만 금세 자리가 사라져 못 잡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강좌 당 수강인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학기 220명 정원의 강좌를 수강하는 김수정(언론정보학 2016)양은 "일반 강의실이 아닌 청운관 지하의 세미나 풀에서 진행되는 만큼 뒤파여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15분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부분의 빅문 강의의 출석체크방식으로 이용되는 U-Class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장희연(주거환경학 2016)은 "대체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출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고장나지 않은 기계 찾았더니기도 바빴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 빅문.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신문에서는 4회에 걸쳐 빅문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Global Collaborative 2017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7.06.30 ~ 07.27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에 특화된 21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7.03.13 ~ 04.3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지: www.facebook.com/khugc

